

인적분할 IR

2024년 3월

Disclaimer

본 자료는 SK이터닉스(주)의 분할 관련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회사의 내부 분석 및 추정으로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회사의 향후 경영/재무 목표를 의미합니다.

이러한 예측 정보는 향후 시장상황 등 경영환경의 변화 및 세부과제의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회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진술 및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,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Table of Contents

1. 분할 목적 및 개요

2. 회사 성장 전략

SK이터닉스(주)

분할 목적

SK디앤디 사업 분할을 통하여 Identity 명확화, 이중 사업의 Discount 해소 등 기업가치 제고

✓ 가치 기여 Potential 높은
Portfolio 성장 가속화

- 리츠/임대주택 사업
- 주거 플랫폼 사업
- 신재생 에너지 사업

✓ 사업 Identity 명확화
투자자 Pool 확대

- 투자 효율성 증대와 신속한 의사결정
- Equity Side, Loan Side

✓ 이중 사업의 Discount
요소 해소



부동산
Real Estate

“New Urban Space
Developer &
Leading Beyond
Space Solution”



신재생에너지
Renewable Energy

“Green Energy
Solution Provider”

| 2024년 3월 1일 분할기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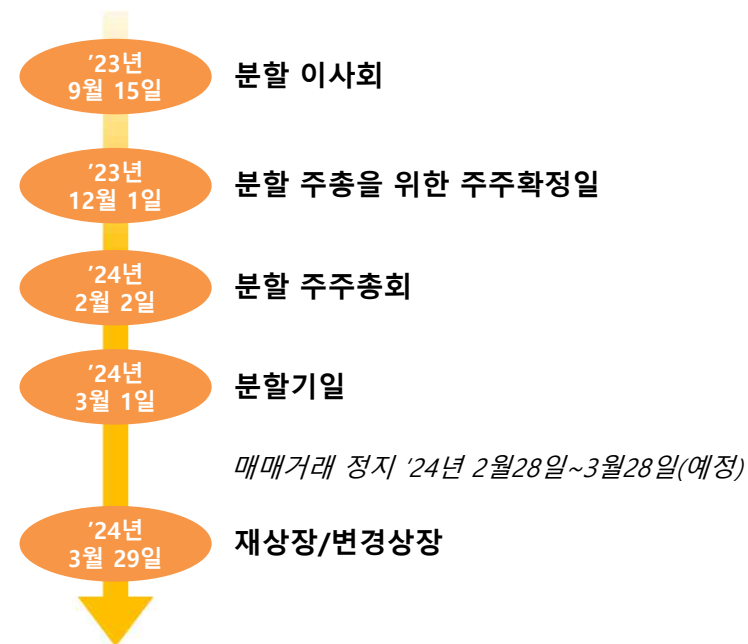
분할 개요

'23년 9월 디앤디 이사회 결의 후 '24년 3월 분할, 3월말 재상장 목표로 진행 예정

| 분할 구조 |

	존속법인	신설법인
법인명	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	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회사
대표이사	김도현 대표	김해중 대표
분할비율	약 77.0%	약 23.0%
발행주식수*	18,617,383주	27,863,905주
액면가액*	1,000원	200원

| 예상 일정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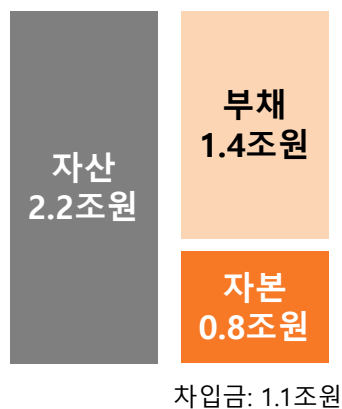
※ 발행주식수(보통주+우선주)는 주식 분포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예상일정 또한 진행 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

분할 전/후 재무구조

분할비율은 존속 0.7696261, 신설 0.2303739

| 분할 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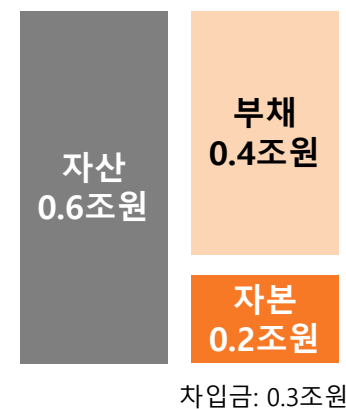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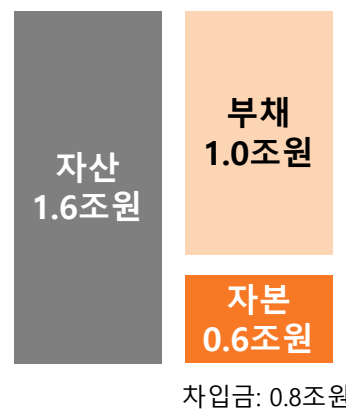
(‘23.2Q, 별도 기준)



| 분할 후 |

존속법인

신설법인



※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화된 수치를 이용한 그래프로, 정확한 수치는 공시된 분할계획서를 참고

Table of 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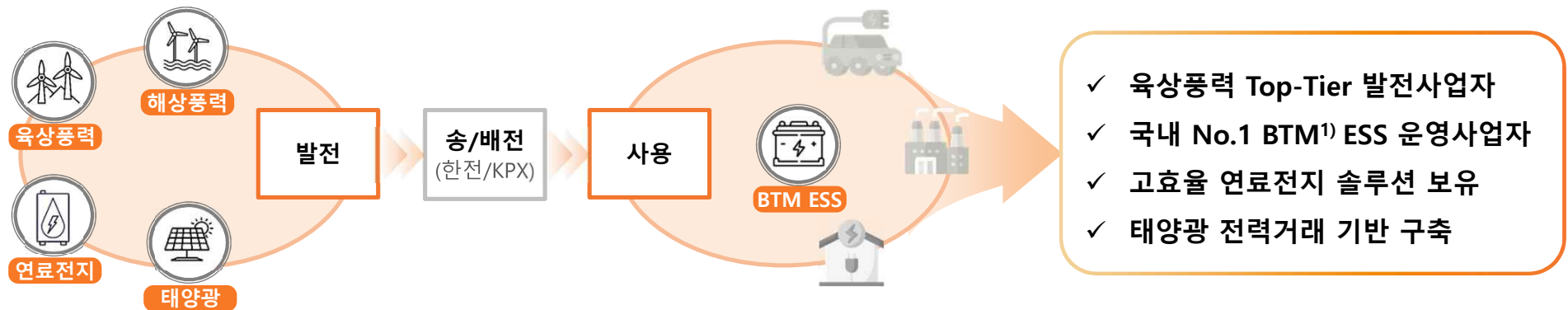
1. 분할 목적 및 개요

2. 회사 성장 전략

SK이터닉스(주)

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확장 중

| 사업 Portfolio 및 확보역량 |



개발

- 풍력/ESS/연료전지/태양광 분야의 개발/EPC/PF 역량 보유

운영

- 육상풍력 (가시리, 울진 83MW)
- ESS (전국 28개소 800MWh)
- 연료전지 (청주, 음성 40MW)
- 태양광 (중소형 50M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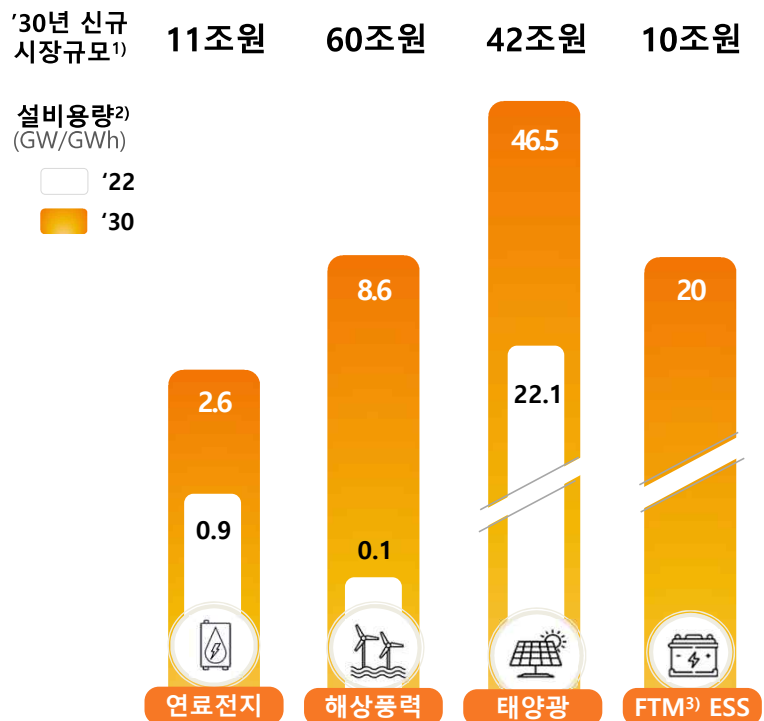
전력거래

- 태양광 발전자원 Aggregation
- 글로벌투자사(Glennmont²⁾)와 JV 설립
- RE100 고객사와 PPA 계약
- 발전량 예측, 재생e 입찰제도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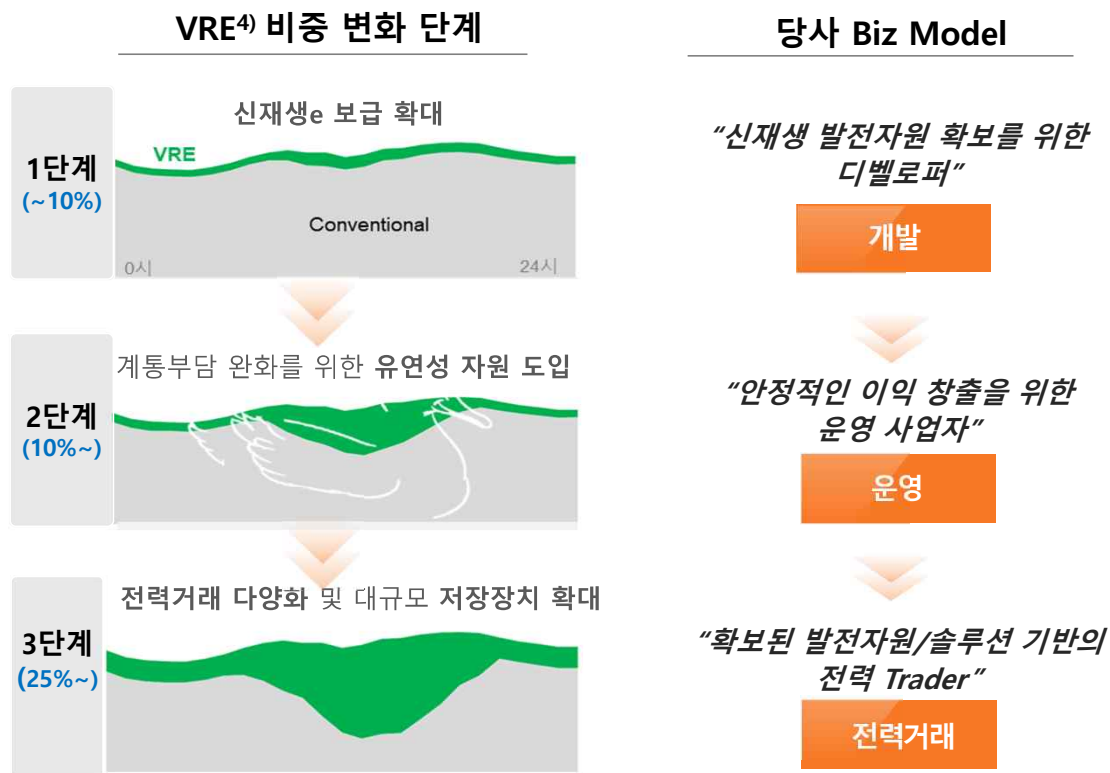
1) BTM(Behind the meter) : 전력량계 이후 고객측에 있는 전력 설비; 2) Glennmont Partners : 영국계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사(AUM 27억유로)로서 미국 AUM 1조달러의 Nuveen(미국 교직원공제회의 투자부분)의 자회사임

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성장 예상되며, VRE 비중 변화에 따른 전력거래 개화 전망

| 신재생e 주요시장 전망 |



| 전력시장 변화와 당사 BM |



1) 사업 투자비 가정(연료전지 65억원/MW, 해상풍력 70억원/MW, 태양광 17억원/MW, ESS 5억원/MWh); 2)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연료전지/해상풍력/태양광은 GW, FTM ESS는 GWh); 3) FTM(Front of the meter): 전력량계 이전 발전측에 있는 전력설비; 4) VRE(Variable Renewable Energy):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)

전력시장 변화에 맞춰, 전력거래 중심의 'No.1 그린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'로 성장

| 성장 방향 |

| 추진 전략 |



1 신재생e 포트폴리오 강화

- 육상풍력 역량 기반 해상풍력 사업 진출
- 연료전지 BM 다각화 (RPS→HPS→자가소비용)

2 전력거래 사업

- 글렌몬트 JV 기반으로 중소형 태양광 발전자원 매입
- 시장 개화에 맞춰 국내 전력거래(VPP) 시장 진입 및 선도

3 Global 진출 (FTM ESS 중심)

- 국내 BTM ESS 운영 노하우 기반 미국 FTM ESS 사업 진출
- 전력 Trading 역량 확보 후 국내 FTM 시장 개화시 선점

4 전략적 파트너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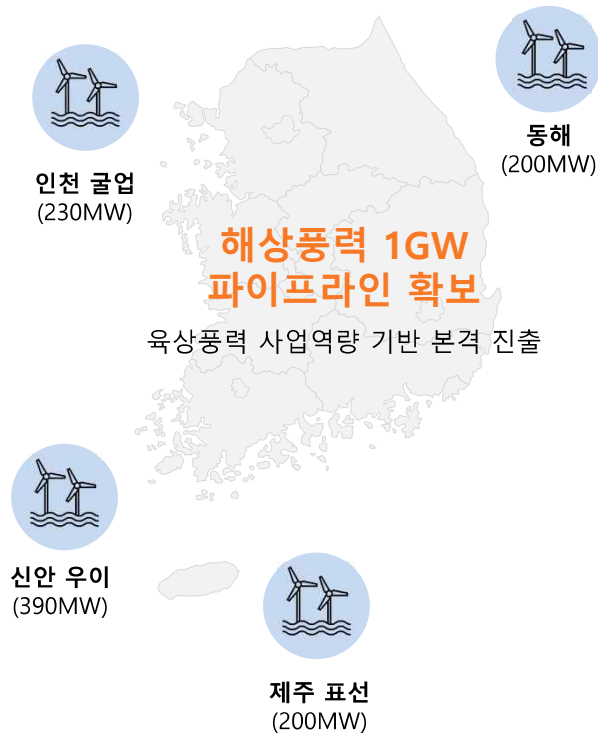
- 개발/운영/솔루션/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확장

1) FTM (Front of the meter) : 전력량계 이전 발전측에 있는 전력설비; 2) VPP (Virtual Power Plant) : 태양광, 풍력, ESS, EV, DR 등 다양한 분산자원을 ICT 기반으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하여 운영

해상풍력사업 확장 및 연료전지 BM 다각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

| 육상에서 해상풍력으로 사업 확장 |

|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진화 |



RPS¹⁾
(1단계)

- 고효율 주기기 공급권 확보
- 연료전지 사업 확대 및 이익 실현
- IPP(민간발전소) 연계 New BM 발굴



청주 20MW



음성 20MW

HPS²⁾
(2단계)

- RPS 경험 기반으로 HPS 입찰 시장 우위 선점
- 중/소규모, 마을복지형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

자가
소비용
(3단계)

- C&I 고객 대상 자가소비용 분산형 전원 보급
- 잉여전력 P2P 거래로 추가 수익 창출
- 그린수소 연계 무탄소 발전원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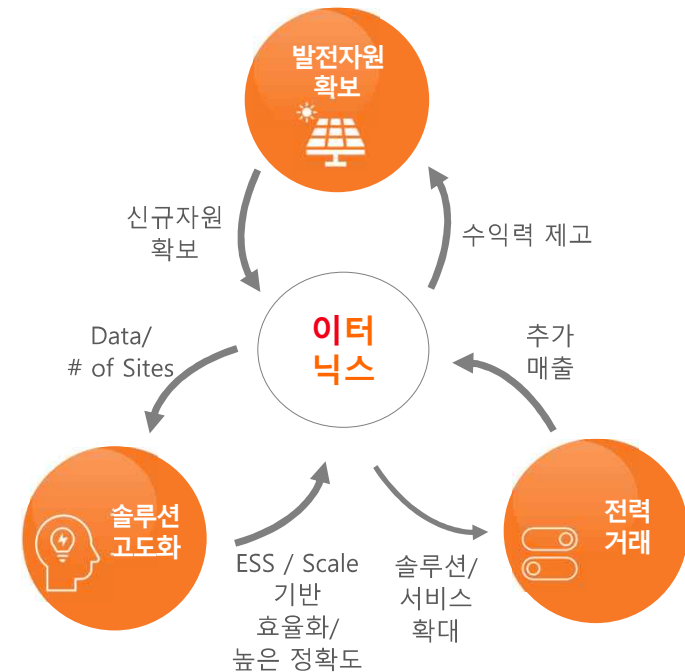
1)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: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; 2) HPS(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): 수소발전의무화제도

차별화된 전력중개 사업모델 기반, VPP 시장 개화시 선점

| 전력중개 사업모델 |



| 선순환 구조 구축 |



1) LCOE (Levelized Cost of Energy) : 균등화발전비용 (발전설비의 전 수명주기에 걸친 비용을 집계한 발전 단가); 2) PPA (Power Purchase Agreement) : 장기 전력구매 계약

국내 BTM ESS 운영 노하우 기반 → 미국 FTM ESS 시장으로 사업확장

| 미국 내 최대 전력 & ESS 시장 진출 |

국내 ESS 시장의 독보적 No.1 입지

"800MWh, 28개소 보유 운영"



1단계 : Anchor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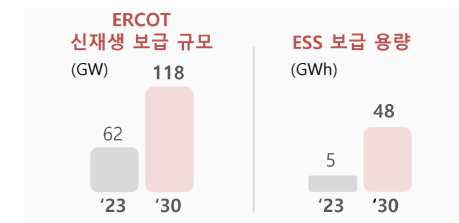
- 🇰🇷 BTM ESS 운영
- 🇺🇸 FTM ESS 진출
 - 전략적 파트너십 활용 역량 축적

2단계 : 지역 확장

- 🇰🇷 FTM ESS 선점
 - 미국시장 역량 기반 '27년(예상) 개화시장 선점
- 🇺🇸 FTM ESS 확장
 - 축적 역량 기반 확장 (전력거래, 지역선정 역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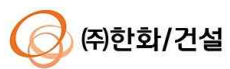
텍사스 ERCOT¹⁾ 시장, 수요량 연 435TWh

"가격 Volatility 및 IRA 하 ITC²⁾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기회"



1) ERCOT(Texas Electricity Reliability Council, 텍사스 전력위원회); 2) ITC (Investment Tax Credit): CAPEX의 일정 %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tax credit 형태로 제공; 보조금의 형태이며, 확보한 tax credit은 타사에 매각 가능

사업역량 강화 및 BM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



- 국내 해상풍력 선도 업체
- 신안우이 공동개발 협약 ('19년)



- 국내 No.1 전력 수요관리 스타트업
- ESS 공동사업 MOU 체결 ('17년)



- 고효율 연료전지 주기기 제조사 (미국)
- 국내 우선공급권 계약 체결 ('19년)



- 글로벌 청정에너지 인프라 펀드사 (영국)
- 발전자원 매입을 위한 JV 설립 ('23년)



신재생e 개발 역량 강화

- 개발 난이도 높고 투자 규모가 큰 사업 대상, 경험/역량이 우수한 국내외 선도사와 파트너십



분산자원 솔루션 개발

- 분산자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(예측, 제어, 입찰)
- 전력중개 솔루션 보유기업 발굴 및 투자



연료전지 사업모델 다양화

- C&I 고객 대상 자소용,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등 융합모델 개발



금융플랫폼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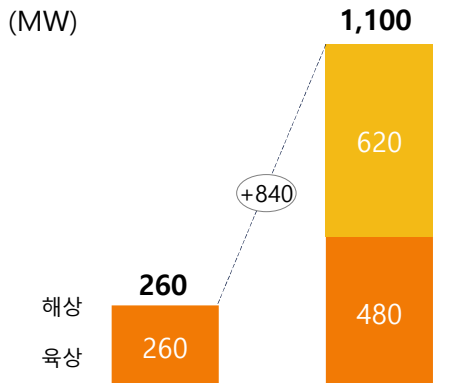
- 국내 ESG 펀드, 녹색채권, 글로벌 신재생 투자사 등 금융구조 다양화

분산자원 3GW 확보를 목표로 시장 선도사업자로 본격 도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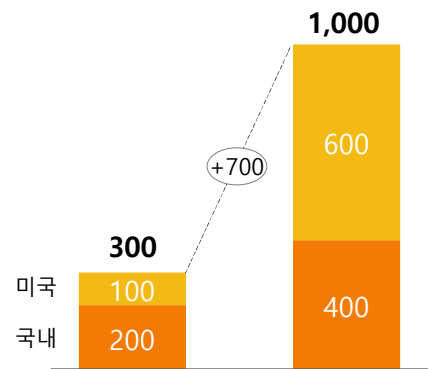
풍력
1.1GW

육상 → 해상으로 확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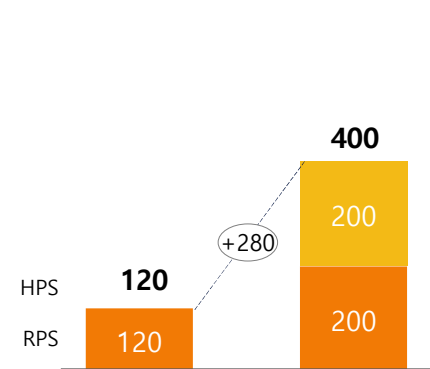
ESS
1GW

미국 FTM ESS 진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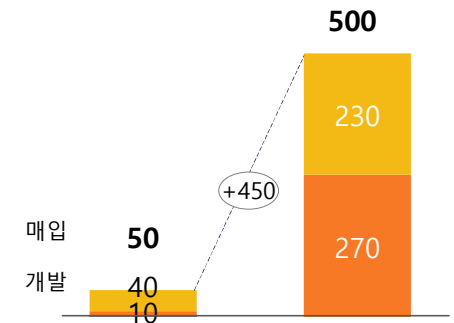
연료전지
0.4GW

BM 다각화



태양광 (전력중개)
0.5GW

개발/매입을 통한 발전자원 확보



에너지 사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형 전력거래 사업자로 진화



감사합니다